

## 귀재鬼才 파가니니

나 운 영

바이올린 하나만 있으면 사람을 울릴 수도 있고, 웃길 수도 있고, 마귀가 될 수도 있고, 천사가 될 수도 있고, 말이 우는 소리도 낼 수 있고, 종소리도 낼 수 있고, 피리 소리도 낼 수 있었던 세기적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파가니니(Niccolo Paganini, 1782~1840)에게는 가지가지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는 8세 때에 바이올린 소나타를 작곡했고 11세 때에 공개 연주회를 열어 크게 성공했습니다. 이 연주회 때에 모인 애호가들은 서로 돈을 모아 파르마란 곳으로 그를 보내서 정식으로 본격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의 기술은 날로 날로 늘어 여러 곳을 순회하여 막대한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동神童은 이때부터 도락道樂을 시작했습니다. 식도락에, 술을 좋아했고, 여자를 가까이했고, 돈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도박에 빠져 버려 아무리 돈을 벌어도 부채는 늘어갈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자기의 귀중한 바이올린마저 팔아 버려 연주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건강까지 해치고 말았습니다.

이때 어떤 귀부인이 나타나 그를 자기의 별장으로 데려가서 휴양시켰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3년 쉬는 동안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부인은 기타를 좋아했기 때문에 파가니니도 그녀를 즐겁게 해 주기 위해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물론 즉시로 명수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그는 바이올린의 기교에 대한 연구를 거듭하여 줄을 통겨 소리 내는 피치카토 주법, 줄에 손가락을 가만히 대서 휘파람과 같은 소리를 내는 하모닉 주법, 그 밖에 2중 하모닉스 주법, 스코르다투라 주법, 2중음 주법 등을 마음대로 연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고향에 돌아가 1년 동안 있다가 다시 연주 활동을 시작하여 오페라 지휘자, 궁정 음악 감독으로 임명되기도 했고 제실대가帝室大家의 칭호를 받기도 했고 남작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게 되는 동시에 여성들과 가까이할 기회가 많은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사랑의 장면>이란 곡이 있는데 이것은 바이올린 G선과 E선만으로 연주되는 곡으로서 이 두 줄로 연애를 교묘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한 줄 또는 두 줄만으로 연주하는 법을 연구하여 어떤 때에는 청중들 앞에서 줄 셋(E, A, D선)을 끊어 버리도록 하고 한 줄(G선)만으로 3옥타브 이상의 음을 마음대로 냈고 하모닉스까지 연주했습니다. 이와 같이 G선만을 위해 작곡된 곡이 <군대 소나타>, <나폴레옹 소나타> 등입니다.

그의 연주가 너무도 능란하여 불란서에서는 사람인지 귀신인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증명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그는 몸이 허약한 데다가 방탕과 도박과 불규칙적인 생활 때문에 건강이 점점 나빠져 1822년에는 심한 기침에 위까지 앓게 되었고 아편중독에 걸려 한동안은 연주가 불가능했습니다. 그 뒤에 후두염, 폐결핵 등에 걸려 쇠약한 몸을 움직여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사랑하는 어머니는 2년 전에 이미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귀재鬼才 파가니니는 58세를 일기로 파란 많은 일생을 마쳤습니다.

< 1962. 새교실 >